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BONE HOUSES

가제 : 본하우스

저자 : Emily Lloyd-Jones

출판사: Little, Brown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9년 9월 24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미스터리/모험



- * “동화와 루머가 실제로 존재하는 위험, 그리고 모험과 만나는 특별한 장소에 관한 이야기. 미스터리하면서도 현실적이고, 마법 같은 이야기다” – 작가 애나 브라이트(Anna Bright)
- * “훌륭한 세계관, 액션이 가득한 이야기, 만성적인 고통이 극에 달하는 상황을 놀라운 묘사로 보여준다. 놀라움을 선사하는 요소도 가득하다” – 사미 토머슨(Sami Thomason), 스퀘어 북스,

아빠는 죽은 이들이 평온하게 잠들 수 있는 무덤을 만들고, 엄마는 그 무덤들이 가득한 묘지 주변에 가시금작화를 심어 죽은 영혼이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했다. 에이더린은 그런 부모님의 첫 번째 아이로 태어나 꼬마 시절부터 마을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울창한 숲에서 뛰놀며 컸다. 엄마 아빠가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린 두 동생의 유일한 버팀목이 된 에이더린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묘지가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숲을 꺼리는 이유이자, 에이더린이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는 아빠의 말을 어기고 더 깊은 곳까지 몰래 들어갔던 여섯 살 때 막대한 전까지는 세상에 그런 존재가 있는 줄도 몰랐던 서늘한 영혼이 갑자기 와르르 깨어나 선을 넘기 시작한다. 자신들만의 영역에서 조용히 지내던 죽은 자들의 영혼, ‘본하우스’가 왜 숲을 건너 마을에 가려고 할까? 콜브렌 마을에 나타난 도시 소년, 엘리스와 이 갑작스러운 변화와 관련이 있을까? 정통 호러 소설과 외딴 마을에 구전되는 무서운 이야기, 동화의 요소를 두루 갖춘 이 이야기는 전설과 판타지가 어우러진 매혹적인 숲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에이더린의 아빠는 태어나 처음으로 본하우스를 목격한 딸에게 죽은 이들을 묻고 돌보는 사람들은 익숙한 일이며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분명 사람의 형체지만 살이 없고 뼈만 남아 텅 빈 눈으로 에이더린을 똑바로 응시하던 본하우스는 아빠 말대로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다. 드넓은 숲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자리한 묘지 주변에 가끔 나타나는 본하우스는 에이더린이 아빠에게 본격적으로 숲의 가장 구석진 곳까지 가는 길과 추운 겨울 귀중한 식량이 될 열매를 독이 든 열매와 구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자 더 자주 눈에 띄었다. 에이더린이 조금 더 자라자 아빠는 묘 자리를 찾고, 돌로 뒤덮인 단단한 땅 표면을 제거하고, 그 아래 부드러운 흙을 파내고,

시신을 정성 들여 천으로 싸는 방법과 땅에 묻기 전, 마지막으로 경의를 표하는 방법까지 모두 가르쳐주었다. 두 살 어린 남동생 가레스와 함께 말괄량이처럼 온 숲을 헤매고 다니던 에이더린은 그렇게 아빠의 뒤를 잇는 어엿한 묘지기가 되었다. 하지만 엄마가 둘째 동생을 임신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진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도시로 이사를 떠나자 아빠가 마지막까지 배웅할 시신도 줄고, 결국 아빠는 저 멀리 광산으로 떠난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엄마까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열일곱 살에 가장이 된 에이더린은 가뭄에 콩 나듯 묘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오래 전 아빠에게 배운 대로 시신을 매장하고 일이 없을 때는 예전에 아빠가 그랬듯 숲에서 나는 식량과 딸감을 모아 힘들게 살아갔다. 그런데 일주일쯤 전부터, 숲에 나갈 때마다 본하우스가 유난히 자주 나타났다. 늘 그렇듯 조용히 숲 주변을 배회하는 대신 마을 가까이까지 다가가 지나던 행인들을 기겁하게 만든 바람에 에이더린이 가지고 있던 도끼로 겨우 저지한 일도 있었다. 해가 지고 캄캄해진 숲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어느 날, 숲 한구석에 누군가가 친 텐트를 공격하는 본하우스를 또 발견한 에이더린은 가차없이 도끼를 휘둘러 그 낯선 여행객을 구해준다. 또래로 보이는 여행자는 옷차림이나 텐트 주변에 널린 짐을 보니 도시에서 온 것이 분명했다. 귀신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놀라고 웬 소녀가 도끼를 휘두르는 통에 더 놀란 엘리스라는 이름의 그 소년은 지도를 만드는 중인데, 마을로 가다 길을 잃어 하룻밤을 숲에서 보내던 중이었다. 통 일감이 없어 돈이 궁하던 차에 엘리스의 제안으로 돈을 조금 받고 그를 마을로 안내해준 에이더린은 마을에서 만난 이웃들도 본하우스가 갑자기 출몰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근심이 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주 오래 전, 고조할아버지가 콜브렌 마을에 살던 시절에 마을에 내린 저주로 죽어도 잠들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본하우스는 수백 년 전 괴물과 마법사 등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모여 살던 '아더포크'와 마을의 평화 협정이 깨진 것과도 관련이 있었다. 당시 갓 형성된 콜브렌 마을에 인구가 늘어나자 밤마다 찾아와 가축과 식량을 훔쳐가던 아더포크는 수확철마다 가장 귀한 음식을 내주면 더 이상 사람들의 일상을 괴롭히지 않기로 했는데, 구리 광산까지 발견되고 인구가 더더욱 늘어나 배불리 먹고 사는 시대가 되자 오만해진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잊고 만 것이다. 이런 마을의 전설을 잘 알고 있는 에이더린은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눈치챈다. 숲에서 만난 엘리스가 무더기로 깨어나 너도나도 마을로 향하려는 본하우스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엘리스에게 이 죽은 영혼들을 끌어 모으는 능력이 있는 걸까? 하나하나 도끼로 찍어 쓰러뜨리는 것으로는 역부족인 사태에 이르자, 에이더린은 엘리스와 함께 이들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선다. 수백 년 전, 숲에서 시작된 전설과 저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두 사람의 모험이 오싹하면서도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저자 소개>

에밀리 로이드 존스(Emily Lloyd-Jones)는 웨스트 오리건 대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로스 몬트 칼리지에서 출판 과정을 마쳤다. 현재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글을 쓰고 있다. 저서로는 『Illusive』, 『Deceptive』, 『The Hearts We Sold』 등이 있다.

제목 : LILY & KOSMO IN OUTER OUTER SPACE

가제 : 멀고 먼 우주로 떠난 릴리와 코스모

저자 : Jonathan Arthur Ashley

출판사: Simon & Schuster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8년 12월 4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모험



- * “빠르게 흐러가는 우스꽝스러운 스토리에 액션과 시기 적절한 농담, 디테일한 일러스트가 곁들여진 이야기. SF 장르를 좋아하는 독자들과 너무 어려서 고전 SF를 잘 모르는 독자들 모두가 좋아할 만한 책” – 센터 포 칠드런스 북(Center for Children's Books)
- * “한껏 과장된, 상상력 가득한 이야기와 함께 어항으로 만든 헬멧, 나무 요새, 장난감 광선총 등 유머러스한 일러스트가 가득한 소설” – 「북리스트」

여자가 할 일과 남자가 할 일이 명확히 나뉘어서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도 그 경계를 넘어서면 마음대로 할 수 없던 1949년, 우주비행사를 꿈꾸는 릴리는 욕실 문을 잠그고 가위를 꺼내 든다. 달 탐사에 나선 팀 대로우와 조수가 등장하는 만화책을 펼치고, 릴리는 굵은 웨이브로 끝나는 긴 머리카락을 주저 없이 잘라낸다. 팀 대로우의 모습과 조금이라도 닮고 싶기도 하고, 몇 분 전 ‘여자는 우주비행사가 될 수 없다’며 고래고래 소리치던 아빠에 대한 반항심이기도 했다. 그러나 문을 걸어 잠근 딸이 또 욕실에서 뭔가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음을 간파한 아빠는 문을 열리며 호통치기 시작하고, 릴리는 뿔테 안경에 짧게 커트한 머리가 완성된 후에야 문을 연다. 보자마자 눈물을 펄펄 쏟기 시작한 엄마의 반응만 봐도 잠시 후 릴리의 집안에 불시착한 우주인이 릴리를 남자아이로 착각한 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그저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어서 좋아하는 등장인물이 나오는 만화책을 보고 라디오에 일주일에 한 번 방영되는 ‘팀 대로우 쇼’를 잠시 들으려 한 것뿐인데 머리를 자르고 방에 갇히고 엄마는 울고 아빠는 고향만 치는 사태가 벌어진 그날 밤은 릴리가 진짜 우주비행사와 만나게 될 것임을 보여준 전조였을까? 아빠가 큰 상자에 우주와 관련된 책이며 장난감을 모조리 썩서 넣고 압수한 후 방에 갇혀 버린 릴리에게 정말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우주비행사가 나타난다. 팀 대로우가 들려주는 달 탐사와는 비교도 못 할 만큼 짜릿한 모험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릴리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집 거실과 부엌 사이에 갑자기 나타난 로켓에서 자그마한 사람이 내리는 광경을 모두 지켜보았다. 둥근 헬멧을 벗자 나타난 앳된 소년은 릴리를 보자마자 ‘이 자식’ ‘사내 놈’ 같은 거친 말을 짹짹 뱉으며 다짜고짜 아르고스 요원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의아해하는 릴리를 향해 자신은 ‘멀고 먼 우주’에서 온 우주비행사 코스모라고 소개한 소년은 그곳의 전설적인 지도자이자 선배 우주인인 아르고스 요원이 지구에 붙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구하러 왔다고 친절히 설명해주었다. 우주에서 왔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또래로 보이는 이 아이가 벌써 우주비행사라니? 장래희망으로 우주비행사 외에 다른 직업은 생각해본 적이 없는

릴리는 코스모의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눈 앞에 연기를 내뿜는 로켓 우주선이며 머리부터 발까지 정말 우주인 복장을 한 코스모를 보니 도저히 거짓말 같지가 않았다. 그런데 코스모의 입에서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나온다. 아르고스 요원이 신원을 숨기기 위해 ‘알피’라는 작전명으로 지구에 왔다는 것이다! 알피는 코스모의 두 살짜리 남동생 이름이었다! 코스모를 알피가 곤히 잠든 아기 침대로 데려간 릴리는 어떻게 이런 환경에 아르고스를 가뒀을 수 있냐며 분개하던 코스모가 서둘러 알피를 안고 우주선에 타려고 하자, 이 집에서 벗어나 우주비행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제야 깨닫는다. 우주에 가보고 싶다는 릴리의 조심스러운 말에 선뜻 자리 하나를 만들어주겠다고 할 때만 해도 코스모는 자신이 우주에서 살고 있는 ‘포트 스페이스트로넛’ 구역의 가장 중대한 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오직 소년들만 살고 있는 포트 스페이스트로넛의 규칙 1번은 ‘여자는 절대 들어올 수 없음’ 이었다! 결국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나가서야 릴리가 머리카락만 짧을 뿐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코스모와 동료 우주비행사들은 여자라면 기겁을 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는다. 하지만 릴리는 전혀 겁이 나지 않았다. 그곳에서도 아버지처럼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을 홀대하거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 릴리는 우주비행사는커녕 우주에서는 무사히 살아 남기도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여자가기 때문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사악하고 못된 악당으로 이름난 ‘모르고’ 때문이었다.

릴리와 코스모 또래의 어린 아이들을 극히 경멸하는 모르고는 ‘모르고나이트’라는 군대를 조직하고 어린이는 눈에 띄는 족족 잡아들여 특유의 활기와 에너지를 빼앗아버렸다. 코스모가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포트 스페이스트로넛도 알고 보니 아이들이 모르고의 무자비한 사냥을 피해 숨어들면서 생긴 곳이었다. 코스모는 아이들이 눈에 띄면 신고해달라며 우주 전체에 광고를 벌일 만큼 ‘어린이 박멸’ 작업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르고의 사업을 방해한 요주의 인물로 찍혀서 아예 현상수배까지 내려진 상황이었다. 과연 릴리는 여자라서 미움 받고 어린 아이라서 도망 다녀야 하는 이 살벌한 우주에서 살아남아 동생을 지키고 코스모 같은 우주비행사가 될 수 있을까? 우여곡절 끝에 코스모가 사는 머나먼 우주에 도착한 릴리는 거세게 반발하는 포트 스페이스트로넛 구성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되지만 잠깐의 평화는 그곳 아이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려고 득달같이 모여든 모르고나이트의 공격에 금방 깨진다.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길게 기른 콧수염으로 곧바로 알아볼 수 있는 최고의 악당 모르고는 왜 그렇게 아이들을 미워할까? 거듭되는 공격을 막기 위해 그가 산다는 거대한 회색 탑으로 몰래 들어간 릴리는 그의 과격한 행동이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한 모르고의 비밀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우주 곳곳에서 등장하는 기괴하고 낯선 생명체들, 날로 흉악해지는 모르고의 계략에 맞서 당당히 싸우는 릴리의 모험은 페이지마다 등장하는 멋진 일러스트로 한층 더 생생하게 다가온다. 상상력과 웃음이 가득한 재미 있는 SF 소설이다.

<저자 소개>

조너선 아서 애슐리(Jonathan Arthur Ashley)는 보스턴 유지움 스쿨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뉴욕 대학교에서 영화제작 과정을 마친 후 저술가, 극작가, 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위 소설이 데뷔작이다.